



군종주보

2024년 10월 20일(제1216호)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 위한 미사(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2코린 2,15)

찬미예수님!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전교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서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함께 해보자며 권유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어떤가요? 쉬워 보이나요? 아니요,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군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건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외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하며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일만을 전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곧 전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으니 나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 욕하기보단 한번 참아보고, 작업할 때 하기 싫다고 욕하기보단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보려고 하고, 누가 시비 걸었을 때 같이 욕하기보단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화해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보단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내가 착하게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 즉 전교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만이 전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가 되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정준(리우렌시오) 신부
백미(육군 제9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이사 2,1-5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로마 10,9-18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특 음 영 성 제 송

마태 28,16-2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가한 것과 불가한 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공포에 떨면서 은밀히 몰래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구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잘 지내던 교우촌이 내일 불시에 쑥밭으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사제들이 어느 곳에 거주한다든가, 무슨 성물이나 물건을 맡긴다든가 할 때, 1개월 동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모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물뿐 아니라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물건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대한 남몰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인이나 양반이나 포졸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대체로 외인들마저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입고 먹고 삽니다. 부자로 드러나면 양반들한테 수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신자들과 외인들이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 양반들과 포졸들한테서 억울한 처사를 당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 실로 통탄과 동정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련한 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기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사부님과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께 청하오니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 더욱 간절히 탄원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제가 신부님께 청구한 물건들을 신부님께서서 전번 서한에 다 장만하였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저는 그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구한 것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견고한 것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늘에서



이 파아란 하늘이
내 것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님과 함께.

저 넓은 하늘이
내 것입니다.

나도 커서
님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천사들과 함께 있는 성모지



붉은 캐노피와 초록색과 금색이 정교하게 새겨진 태피스트리(양탄자)를 배경으로 한 옥좌에 붉은 겹옷을 두르신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을 천사들이 보위하고 있다.

성모님이 앉아 계신 공간은 성당의 한 부분으로도 보이며, 그 뒤로 열린 창문으로는 왼편에는 샘물(혹은 강)이 흐르는 성곽이, 오른편에는 자연 지대가 펼쳐져 있다. 지평선 멀리 교회 첨탑 같은 건물도 보인다.

이 그림을 아우르는 주제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이르는 인간의 구원이다.

한스 멤링(Hans Memling, 1465년~ 1494년)
1479년경 제작
패널 위 유화, 58.8x48cm
니셔널 갤러리, 미국 워싱턴 D.C.

아기 예수님께 사과를 건네는 천사는 이 당시 부제들이 입던 미사복을 입고 있다. 뒤편 건축물에 조각된 것은 포도나무 모양과 다윗 그리고 이사야의 모습으로, 천사가 건네는 원죄의 상징이기도 한 사과를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수난을 감내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모님의 엄숙하면서도 처연한 표정과 대비되는 아기 예수님의 친진한 표정과 고요하고 평화롭기까지 한 그림 분위기가 수난의 숙연한 의미를 더욱 와닿게 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협회 회원של 위한 미사 - 연중 제29주일: 칠성 조혜용 신부

◆ 교구장 동정

- 신선대(해군작전사)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20일(주일)
- 재경지역 사제모임
 때·곳: 10월 24일(목), 군중영성센터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24년 정기이사회
 때·곳: 10월 25일(금) 11:00,
 서울성모병원 21층 대회의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